

## "미중 무역분쟁, 단기 GDP 영향보다 중기 투자위축이 더 우려"

기사입력 2019/09/27 14:56 송고

###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강연



#### 강연하는 제프리 샷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오찬강연회에서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미·중·한·일 무역분쟁과 세계무역체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9.27 mjkg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위원(시니어 펠로)은 27일 "지금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가져온 문제는 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세 둔화에 그쳤지만, 더 큰 우려는 불확실성 증가"라고 지적했다.

샷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오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샷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제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만약을 대비해 초과 재고를 쌓아두거나 공급업체 여러 곳과 거래하는 등 효율성이 낮은 투자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비효율과 낮은 생산성이 경제 시스템에 포함되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즉각적 피해보다 투자 쪽에서 발생하는 중기 피해가 더 크다"며 "미중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샷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미국에서 민감한 기술이 수출될 때 제한이 엄격해지고 있고, 이 기술이 중국으로 전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특히 더 많은 제재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이는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샷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자국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회 참석한 전광우-제프리 샷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오찬강연회에서 전광우 IGE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2019.9.27 mj kang@yna.co.kr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 동맹국은 없다"며 "그만큼 안보 위협을 해소해야 하는데 미국이 움직이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샷 연구위원은 "미국이 타국을 공격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위협받고 협력 여지가 차단되고 있다"며 "WTO 안에 효과적인 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27 14:56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월드 > 동북아

# "한일갈등, WTO 제소로 해결 안돼...피해 최소화 꾀해야"

제프리 샷 PIIE 연구위원, 미중·한일 무역분쟁 강연 "한일 갈등에 美안보까지 위협...트럼프는 수수방관"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9-09-27 16:14 송고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연구위원 (세계경제연구원) © 뉴스1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미 한 차례 타격을 받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양국 간 통상 갈등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도 한일 관리들은 해묵은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현 사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파트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양국은 일단 역사 문제를 차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연구위원은 27일 세계경제연구원(IGE) 주최로 열린 '미·중, 한·일 무역분쟁과 세계무역체제' 주제 강연회에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한국 경제에 일본과의 갈등이라는 악재가 더해졌다고 이같이 말했다.

샷 연구위원은 한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 중 일본 비중이 20%(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자본이 일시적으로 빠지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일 갈등이 양국 정치 지도자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샷 연구위원은 "기존 WTO 규칙에 따르면 양국 모두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종 판결이 내려면 최소 몇개월에서 최대 몇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양국이 입을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과의 관계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라는 점을 의식한 듯 "정치나 외교 문제까지 건드리려는 건 아니다"라며 강제수용소에서 고초를 겪은 친척이 있다는 개인사까지 가져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샷 연구위원은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책이 복잡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한일 갈등 때문에 양국은 물론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미국인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가치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가장 큰 문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를 꼽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한국과 일본을 대체할 동맹국이 없어 안보 리스크를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데, 한일 갈등을 중재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나는 20년 전부터 한미 동맹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일갈등 해소 안 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 부작위, 가장 큰 문제"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9.28 00:57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연구위원(사진)은 27일 세계경제연구원(IGE) 주최로 열린 '미·중, 한·일 무역분쟁과 세계무역체제' 주제 강연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중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샷 수석연구위원은 우선 한일 양국에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는 "한일 관리들은 해묵은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현 사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국 지도자들은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관리해 정치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IGE

그는 "한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 중 일본의 비중이 20%(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에서 양국의 협력 중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도 양국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WTO 규칙에 따르면 양국 모두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 판결이 내려면 최소 몇개월에서 최대 몇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양국의 경제적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양국의 태도보다) 가장 큰 문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 지역에 한국과 일본을 대체할 동맹국이 없어 안보 리스크를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데, 한일 갈등을 중재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20년 전부터 한미 동맹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미국은 동맹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는 "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세 둔화보다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라며 "경제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이 힘들어져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투자를 미루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 진단했다.

샷 수석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생산성이 경제 시스템에 포함되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즉각적 피해보다 투자 쪽에서 발생하는 중기 피해가 더 크다"며 "미중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들어 미국에서 민감한 기술이 수출될 때 제한이 엄격해지고 있고, 이 기술이 중국으로 전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특히 더 많은 제재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이는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되더라도 양국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란과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을 봉쇄한 미국의 제재를 중국이 위반하는 등 석유 문제가 개입되면 파국은 크게 불타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호 기자

뉴스 &gt; 경제

**"韓, 일본과 정치적 문제 해결 못해도 경제 관계 관리해야"**

등록 2019-09-27 16:40:15 | 수정 2019-09-27 16:48:14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세계경제연구원 강연



27일 세계경제연구원(IGE)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주최한 오찬강연회에서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미·중, 한·일 무역분쟁과 세계무역체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세계경제연구원 제공)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는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이 광기로 치달고 있으며 둘 사이의 어떠한 합의도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역분쟁이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일본 등 역내 국가도 부정적인 파문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오찬 강연에서 '미·중, 한·일 무역분쟁과 세계무역체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무역분쟁 지금 합의해도 지속 가능 어려워"**

샷 선임연구위원은 "주지해야 할 점은 중국이 소폭 양보하고 미국의 차별조치를 완화하면 무역분쟁이 단기간에 끝난다고 두 나라 모두 예상했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다. 합의에 직면할 정도로 협상을 잘 하다 다시 어려워지는 패턴을 반복하며 지금은 광기 수준으로 치달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 11월 치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불안한 상황이 더욱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모든 경제적 고려 사항에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샷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합의안이 지속할 것이라는 시각에 회의적이다. 미국 정치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샷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영향이 관세 증가 정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꼬집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결정을 미루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투자를 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공급업체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공급업체를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느라 생산성과 효율성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확실성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 두 나라와 이해관계가 얽힌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한다는 점이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미중 무역분쟁이 전 세계 경제 성장 자체를 저해하게 된다.



27일 세계경제연구원(IGE)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주최한 오찬강연회에서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미중,한·일 무역분쟁과 세계무역체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세계경제연구원 제공)

###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제대로 관리해야"

샷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경제 성장에 관심이 많다면 적어도 일본과 무역분쟁을 겪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간의 해묵은 문화적·정치적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관리하는 해야 한다"며, "일본은 한국의 중요

한 경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강연에서 한일 간의 정치적·역사적 분쟁의 근원까지 건드리려는 건 아니다"며 자신의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서 고초를 겪거나 사망한 적이 있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양국 정치 지도자들이 오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두 나라가 입는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문제를 관리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샷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으로 두 나라가 국가 안보 이익은 물론 경제 이익도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자 차원의 협력은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책이 여러 복잡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협력의 중요성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샷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한일 관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도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문제는 '작위'보다 '부작위'다. 미국과 동맹 간의 안보 동맹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게 실책"이라며, 워싱턴 정가에서도 미국의 안보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위협받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제대로 대체를 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안보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대체할 수 없는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NEWSHANKUK.COM, INC. ALL RIGHTS RESERVED.

## "미중 무역분쟁, 단기 GDP 영향보다 중기 투자위축이 더 우려"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강연

입력 : 2019.09.27 14:56:45



△강연하는 제프리 샷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위원(시니어 펠로)은 27일 "지금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가져온 문제는 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세 둔화에 그쳤지만, 더 큰 우려는 불확실성 증가"라고 지적했다.

샷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오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샷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제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만약을 대비해 초과 재고를 쌓아두거나 공급업체 여러 곳과 거래하는 등 효율성이 낮은 투자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비효율과 낮은 생산성이 경제 시스템에 포함되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즉각적 피해보다 투자 쪽에서 발생하는 중기 피해가 더 크다"며 "미중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샷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미국에서 민감한 기술이 수출될 때 제한이 엄격해지고 있고, 이 기술이 중국으로 전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특히 더 많은 제재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이는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관계에

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샷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자국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회 참석한 전광우-제프리 샷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 동맹국은 없다"며 "그만큼 안보 위협을 해소해야 하는데 미국이 움직이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샷 연구위원은 "미국이 타국을 공격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위협받고 협력 여지가 차단되고 있다"며 "WTO 안에 효과적인 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Interview with PIIE senior fellow Jeffrey Schott



**NEWS  
CENTER**  
Bangkok 17:17

**Jeffrey SCHOTT, Senior Fellow**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The protracted U.S.-China trade spat has not only resulted in each side applying tariffs on billions of dollars of goods, it's also weighing on global growth. The IMF says the tariffs imposed by Washington and Beijing could drive down global GDP by point-eight percent for next year, and the U.S. Fed says the drop in global GDP could be as high as one percent, or 850 billion U.S. dollars.

"The tariffs have an impact. But I think less well understood and much greater impact is on the perception of what future growth is going to be to investors who have to make the decisions whether to invest in new plant and equipment, whether to change their supplier relationships. All of these actions are inefficient and they waste resources that we could otherwise be used more productively. That will have a drag down on growth . . .

We are seeing warnings of a possible global recession, what's your take on the global economic outlook?

I'd say take what the IMF estimates and deduct a few tenths of a point for all the major countries. The trend seems to be weakening. Forces weakening growth in major economies are reinforcing each other. When you have an impending election like we have in the U.S. coming up, it can lead to a lot of hot rhetoric that obviously roils the markets, creates much more volatility. So I think not a serious crisis, like we had ten years ago, but a significant weakening in global economic growth. That's not good news for the U.S. or for Korea.

2. With low interest rate, low growth and low inflation, some economists even say Korea could face a long-term economic slowdown, like Japan's Lost Decades. What's your take on this?

I think just as Prime Minister Abe had a third arrow of Abenomics with structural reforms. There's still a lot of room for Korea for domestic reforms that can boost productivity. The resources of the Korean people are very very large, very important. They can be better used. So while the international climate is weakening, there's still the opportunity to pursue domestic initiatives that will unlock some of the productivity gains that have been held back.

Dr. Schott added that encouraging productive investment and having a more efficient utilization of services in the whole economy, not just the manufacturing sector, will be key.  
Kim Hyesung, Arirang News.

[Click to Print](#)

LIVE

News

TV

Radio

PLUS

Top Stories

Nat'l/Politics

North Korea

Economy

IT/Science

Foreign Policy

World

Other Stories African swine fever outbreak across S. Korea has caused shortfall in pig supply

# Interview with PIIE senior fellow Jeffrey Schott

Updated: 2019-09-27 16:11:14 KST



Kim Jong-un may visit China this week with N. Korea-U.S. talks looming

02:22



### Hong Kong prote...

Protesters in Hong Kong took to the streets in big numbers yet again...



### African swine fev...

Pork prices, which have already increased due to continued confirm...

+ Text Size Large / - Small

The protracted U.S.-China trade spat has not only resulted in each side applying tariffs on billions of dollars of goods, it's also weighing on global growth.

The IMF says the tariffs imposed by Washington and Beijing could drive down global GDP by point-eight percent for next year, and the U.S. Fed says the drop in global GDP could be as high as one percent, or 850 billion U.S. dollars.

"The tariffs have an impact. But I think less well understood and much greater impact is on the perception of what future growth is going to be to investors who have to make the decisions whether to invest in new plant and equipment, whether to change their supplier relationships. All of these actions are inefficient and they waste resources that we could otherwise be used more productively. That will have a drag down on growth. .

We are seeing warnings of a possible global recession, what's your take on the global economic outlook?

I'd say take what the IMF estimates and deduct a few tenths of a point for all the major countries. The trend seems to be weakening. Forces weakening growth in major economies are reinforcing each other. When you have an impending election like we have in the U.S. coming up, it can lead to a lot of hot rhetoric that obviously roils the markets, creates much more volatility. So I think not a serious crisis, like we had ten years ago, but a significant weakening in global economic growth. That's not good news for the U.S. or for Korea.

2. With low interest rate, low growth and low inflation, some economists even say Korea could face a long-term economic slowdown, like Japan's Lost Decades. What's your take on this?



### Pres. Moon urge...

President Moon Jae-in has called for an extensive shake-up of the pros...



### N. Korean delega...

Meanwhile, North Korean officials in charge of UN affairs have been sp...



### UNESCO express...

UNESCO expressed support for South Korea's goal of turning the inter...



### Nine people inju...

We start with news that an oil tanker exploded this morning in Korea's...



### N. Korea-U.S. nu...

South Korea's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expects nuclear talks be...

President Moon chairs 19th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Monday afternoon

Korea's 3 major indicators of industrial activity all increased in August

Rain for Jeju and southern regions, Typhoon Mitag on way to Korea

I think just as Prime Minsiter Abe had a third arrow of Abenomics with structural reforms. There's still a lot of room for Korea for domestic reforms that can boost productivity. The resources of the Korean people are very very large, very important .They can be better used. So while the international climate is weakening, there's still the opportunity to pursue domestic initiatives that will unlock some of the productivity gains that have been held back.

Dr. Schott added that encouraging productive investment and having a more efficient utilization of services in the whole economy, not just the manufacturing sector, will be key. Kim Hyesung, Arirang News.

Reporter : hs\_kim@arirang.com

Wide daily temperature range increases risk of shingles  
S. Korea records highest number of deaths on record in 2018  
African swine fever outbreak across S. Korea has caused shortfall in pig supply  
Musk unveils SpaceX's new 'Starship', designed to fly to Moon, Mars and beyond  
Kim Jong-un may visit China this week with N. Korea-U.S. talks looming  
S. Korea to hike tax rates on high-earning online influencers, YouTubers: Finance Ministry  
Hong Kong protesters mark 5th anniversary of Umbrella Revolution in face of water cannons



본 저작물 중 본문에 해당하는 뉴스 스크립트(텍스트)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You May Like

Promoted Links by Taboola

모발이식 지원자 모집중! - 머리만 조금 채워주면, 5년은 젊어진다.

모제림성형외과

Simply K-Pop Summer Vacation Special #2 Ep.279

마켓컬리 가입하면 대구막창 19,000원 → 3,000원!

마켓컬리

Radio News AOD | The World On Arirang

High- 84F, 29C Seoul Low- 63F, 17C

High- 100F, 38C Riyadh Low- 68F, 20C

- About Arirang How to Watch Advertisement Contact Us Copyright Policy 정보공개 Terms of Use Privacy Policy LANGUAGE > ENG > KOR



Arirang Tower, 2351,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06713, Rep. of KOREA Tel : 82-2-3475-5000 E-mail : help@arirang.com

Copyright Since 1996, The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ing Foundation All Reserved.



비주얼 뉴스홈 **포토** 영상 화보 #D 그래픽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세계



포토홈

### IGE 초청 강연하는 제프리 샷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오찬강연회에서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미·중·한·일 무역분쟁과 세계무역체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9.27

mjk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09/27 13:17 송고

HELLO PHOTO 국내 최대 규모 사진아카이브 서비스 >

비주얼 뉴스홈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비주얼 뉴스홈 **포토** 영상 화보 #D 그래픽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세계



포토홈

### 강연자로 나선 제프리 샷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오찬강연회에서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미·중,한·일 무역분쟁과 세계무역체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9.27

mjk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09/27 13:17 송고

HELLO PHOTO 국내 최대 규모 사진아카이브 서비스 >

비주얼 뉴스홈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비주얼 뉴스홈 **포토** 영상 화보 #D 그래픽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세계



포토홈

### 강연하는 제프리 샷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오찬강연회에서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미·중·한·일 무역분쟁과 세계무역체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9.27

mjk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09/27 13:16 송고

HELLO PHOTO 국내 최대 규모 사진아카이브 서비스 >

비주얼 뉴스홈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비주얼 뉴스홈 **포토** 영상 화보 #D 그래픽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세계



포토홈

### 강연하는 제프리 샷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오찬강연회에서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미·중,한,일 무역분쟁과 세계무역체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9.27 mjk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09/27 13:16 송고

HELLO PHOTO 국내 최대 규모 사진 아카이브 서비스 >



비주얼 뉴스홈 **포토** 영상 화보 #D 그래픽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세계



포토홈

### 강연회 참석한 전광우-제프리 샷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오찬강연회에서 전광우 IGE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2019.9.27

mjk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09/27 13:17 송고

HELLO PHOTO 국내 최대 규모 사진아카이브 서비스 >

비주얼 뉴스홈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비주얼 뉴스홈 **포토** 영상 화보 #D 그래픽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세계



포토홈

**'미·중·한·일 무역분쟁과 세계무역체제'**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오찬강연회에서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미·중·한·일 무역분쟁과 세계무역체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9.27

mjk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09/27 13:16 송고

HELLO PHOTO 국내 최대 규모 사진아카이브 서비스 >

과거의 성공이 성적이었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열정'입니다.



비주얼 뉴스홈 **포토** 영상 화보 #D 그래픽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세계



포토홈

### 인사말하는 전광우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오찬강연회에서 전광우 IGE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2019.9.27

mjk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09/27 13:17 송고

HELLO PHOTO 국내 최대 규모 사진아카이브 서비스 >

비주얼 뉴스홈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비주얼 뉴스홈 **포토** 영상 화보 #D 그래픽

포토홈 정치 북한 산업/경제 IT/과학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세계



포토홈

### 초청 강연하는 제프리 샷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오찬강연회에서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미·중, 한·일 무역분쟁과 세계무역체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9.27

mjk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09/27 13:17 송고

HELLO PHOTO 국내 최대 규모 사진 아카이브 서비스 >